

보도 일시	2022. 1. 25.(화) 16:30	배포 일시	2022. 1. 25.(화) 16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	책임자	팀 장	박민주 (044-215-4840)
		담당자	사무관	이동훈 (ldh5758@korea.kr)
		담당자	연구원	지윤서 (cys12@korea.kr)

홍남기 부총리, '22년 국제통화기금(IMF) 연례협의 관련 한국 미션단 화상 면담

-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.25일(화) 14:00, 세종청사에서 IMF 미션단(미션단장 : Martin Kaufman, 마틴 카우프만)과 화상 면담을 가졌다.
- IMF 미션단장은 1.11(화)~1.25(화)간 진행한 연례협의* 결과를 부총리께 보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.
 - * 기재부 · 국토부 · 산업부 · 고용부 · 복지부 · 환경부 · 금융위 · 금감원 · 한국은행 · 한국개발연구원 · 조세재정연구원 · 주택금융공사 등
- 연례협이는 IMF 협정문(Article IV)에 의거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 · 재정 · 금융 등 경제전반의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로서, 연례협의 결과에 대해 IMF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가별 보고서(Staff report)를 발표*한다.
 - * IMF 미션단은 금번 연례협의를 토대로 3월말 IMF 이사회를 거쳐 한국 보고서 발간 예정
- 카우프만 미션단장은 한국은 단기적 측면에서 인상적으로(impressively) 코로나 극복과 경기회복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구조개혁 측면에서도 전세계적인 모범국가라 평가하였다.
- 단기적으로 한국은 확진자수 억제,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 · 통화정책으로 경제적 상흔을 최소화하면서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하였다고 말하였다.

- 특히 한국은 시의적절한 재정정책을 추진중이라고 언급하고, 금번 14조원 추경을 통해 코로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 것을 환영하면서, 규칙 기반(rule based)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도 권고했다.
- 금융·대외부문에서도 한국이 강한 회복력(resilience)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수출 호조,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등을 높게 평가하였다.
-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구조개혁도 훌륭하다고 언급하며, 한국판 뉴딜을 모범적인 사례로 꼽았다.
- 2050 탄소제로(net zero), 탄소감축 목표 상향 등 기후변화대응 노력 역시 모범적(textbook)이라며, 필요한 경우 IMF의 기술적 지원을 약속했다.
-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의 코로나 극복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역대책을 믿고 동참해준 국민의 신뢰와 결집능력 덕분이라고 설명하면서,
 - 그 결과, '21.4/4분기 시장기대를 뛰어넘는 1.1% 성장률(전기비)을 통해 정부가 예상한 '21년 4.0% 성장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.
 - 아울러 앞으로도 탄력적인 방역조치, 14조원 추경의 신속한 확정·집행 등을 통해 '22년 3.1%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.
 - '22년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607.7조원(전년 본예산 대비 +8.9%)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완전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중이라고도 설명하였다.
- 미션단장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에 대해 오미크론 확산, 글로벌 공급망 차질, 미국·중국의 성장률 둔화,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을 꼽았다.
 - 홍 부총리는 여러 위험요인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하며, 정책방향 결정과정에서 IMF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하였다.